



제목	From Shamanism to Sufism 『샤머니즘에서 수피즘까지』
발행언어	영어 한국어
발행처	I. B. Tauris 민속원
발행일	2014. 3. 27. 2015. 9. 30.
저자	Razia Sultanova 박일우 옮김
출판도시	London, New York 서울
페이지수	256 344
ISBN 또는 ISSN	978-1780766874 978-8928503599

**내용 요약**

이 책의 저자는 중앙아시아의 범위를 제법 넓게 설정해 놓았는데, 말하자면 카스피해에서 시베리아까지 중앙아시아에 속한다. 이 광대한 지역을 관통하면서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벨트로 묶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다. 한국어 번역본 표지에서 “이 책은 이제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서구인들에 의해 종종 왜곡되었던 중앙아시아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의 종교와 문화실습에 대해 내국인 학자가 최초로 밝힌 연구서”로 소개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과 소련 통치 하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역사적 개괄에 이어 제2장에서 유목문화의 샤머니즘을 다룬다. 무당이 어떻게 되는지, 중앙아시아에서 여성과 샤머니즘의 관계가 어떤지를 피력하고 샤머니즘과 이슬람교를 상호 비교한다. 제3장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수피즘을 다루는데, 수피즘의 역사적 발전을 개관하고 중앙아시아 수피의 중심 종단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여성 수피즘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여성 수피 시인들과 그들이 쓴 가잘 형식의 시를 소개하고 해석한다. 제5장에서는 수피 전통과 관계있는 종교적 지식과 지식의 전승을 다루면서 장인과 도제를 의미하는 우스타드와 소기르드의 지식 전수 내지 전승 방법, 전문길드와 전문 음악인 양성을 사례로 든다. 제6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수피 음악과 여성 가수들을 소개하고, 제7장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과 수피즘의 관계를 규명하며, 제8, 9, 10장에서는 각각 여성공동체 내 악기와 춤, 여성 민속 수피즘, 각종 여성 의례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11장에서는 투르크어 사용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여성 의례들을 선보 이면서 여성 의례와 음악의 상관성을 설명한다. “중앙아시아 여성 수피 종교인의 의례연행에 따른 전통예술과 전승에 대한 최초의 민족지”로 평가 받고 있는 이 책은 중앙아시아의 역사나 종교, 이슬람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필독서에 해당한다.